가이류오지 절(海龍王寺, 해룡왕사)

십일면관음상

중요문화재

이 상은 자비의 여신으로 알려진 관음보살의 상으로 가이류오지 절의 본존입니다. 관음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식과 부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집니다. 머리 위에 배치된 11 개의 얼굴은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,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얼굴은 자비심과 평정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11 개의 얼굴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, 10 개의 얼굴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열 단계를, 맨 위의 11 번째 얼굴은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.

이 상은 신실한 불교도이자, 가이류오지 절과 도다이지 절(東大寺), 고후쿠지 절(興福寺) 등 주요 사찰의 후원자였던 고묘 황후(701~760 년)가 조성한 십일면관음상을 바탕으로 가마쿠라 시대(1185~1333 년)에 만들어진 것입니다.